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원 편집국장: 조원근

'96 겨울 계절학교, 내일부터 출발!

1월 22일 중등2부로 시작하여

3월 1일 사랑부, 영어주교, 청년1부, 3월 5일 청년2부로 막내려

해마다 방학을 이용하여 일년에 두 번씩 열리는 계절학교 및 수련회가 금년 겨울에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중등2부 수련회(1월 22일~24일)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부서별로 열리게 된다.

교회학교 각 부서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1월 22일에서 3월 5일에 걸쳐, 하루

또는 길게는 나흘까지 교회와 본교회 산하 충헌기도원에서 열리게 될 겨울 계절학교는, 이미 2, 3개월전부터 준비위원회를 선정하고 모임을 가지며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알찬 진행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겨울은 예년과는 달리 수은주가 한층 내려간 쌀쌀한 날씨로 인해 겨울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수련회와 계절학교가 기대된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는 모든 집회와 모임에서 찬송가만을 부르도록 당부했던 원로목사의 말씀처럼 비록 성경학교나 수련회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복음송일색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미 오랜 시간을 두고 신앙선조들로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감격과 은혜로 감동되어오고 있는 찬송가를 많이 부를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회학교 교육의 어려움을 말한다면 신앙으로 충분히 교육할 시간의 부족을 단연코 첫번째로 손꼽을 것이다. 이런 교회학교 교육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해마다 겨울과 여름에 열리는 계절학교는

교회학교 교육에 아주 소중한 장이 아닐 수 없다.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겨울 계절학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정성어린 기도와 사랑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회학교 각 부서의 겨울 계절학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부서	장소	일자	주제	강사
영어부	선102호	2.27~28	경건한 예배! 경건한 아기!	박도수, 허영자
유아부	교 212호	2.27~28	열매맺는 나무	제선화
유치부	교205,202	2.26~28	깨어 일어나라	정연희
초등1부	교307호	2.26~28	기도하는 어린이	손미희
초등2부	교314호	2.26~28	예수님! 내 맘속에 계세요	송향자
초등3부	교407호	2.26~28	찬양하세 여호와께	오인숙
초등4부	교414호	2.26~28	하나님을 알자	박노철
초등5부	교514호	2.26~28	천국공동체를 이루자	김필수
초등6부	교507호	2.26~28	생각하라 행하라 함께하시리라	조동원
중등1부	충헌기도원	1.29~31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김희수
중등2부	충헌기도원	1.22~24	성경의 생활화	최영찬
중등3부	갈릴리홀	1.22~24	성경을 읽는 학생이 되자	이흥성
고등부	충헌기도원	2.26~29	하나님 나라의 불씨가 되자	한근수
대학부	충헌기도원	1.29~2.2	예수, 복음, 자유, 삶	장봉생
청년1부	충헌기도원	2.29~3.1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김동석
청년2부	갈릴리홀	3.4~3.5	제자도와 청지기직	김경진
장년1부	교414호	2.17~18	주 앞에 유쾌한 날을 누리자	정광욱
새가정부	교212호	2.10	가정의 현주소는?	성봉환
사랑부	교107호	3.1	효도하는 어린이	장경철
에바다부	마정	2.26~28	주님의 일꾼이 되자	이준우, 이영빈
영어주교	가나홀	3.1	세상의 빛	이승림

제1차 세례식

2월 1일(목) 예비문답

2월 2일(금) 세례식

'96년도에는 세례식 거행을 연 4회에서 6회로 변경 실시한다. 연 4회로 실시할 경우 중·고등부 학생들의 참석이 학교출석 관계로 어려웠는데 방학 중인 2월과 8월에 2회 더 세례식을 실시함으로써 이런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제1차 세례식은 2월 1일(목)에 예비문답을 하고 2월 2일(금)에 거행된다. 제1차 세례식에 참여할 성도들은 1월 28일(주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성찬식은 그대로 연 4회(3, 6, 9, 11월)로 거행된다.

1월 28일은
선교주일로 지킨다

선교회 총회 및 선교헌금 작성 등

선교주일은 교회가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온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이해와 사명을 새롭게 하고 선교적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지켜왔다.

선교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선교주일을 맞으며 선교사 및 선교 전시화, 선교회 총회, 선교헌신예배 등을 계획하고 있다. 1월 28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개최되는 '96 선교회 총회는 95년도 결산 및 96년도 계획, 파송 선교사들에 대한 근황 및 보고, 선교연구원 수료식 등으로 진행되어 충헌교회 선교에 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

또한 1월 28일 주일 I, II, III, IV부 예배 시간에는 선교헌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저녁찬양예배는 선교회 헌신예배로, 선교위원회 지도 장봉생 목사의 사회, 이종대 목사가 설교를 그리고 선교회 회원들의 찬양시간도 있다.

'96 충헌청지기 훈련 계속

1월 26일 금요일, 강사에 윤영탁 목사

본교회 교육훈련원 산하 성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96 충헌청지기 훈련이 지난 1월 19일(금)에 이어 오는 26일(금)에도 실시된다.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헌신케 하여 교회를 성장케 하는 데(딤후 2:15) 그 목적을 두는 이번 청지기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봉사와 헌신으로 열매맺자!', '죽도록 충성하자!'라는 목표 아래 본교회 본당에서 실시된다. 훈련대상은 제직 전원(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과 각부서 봉사자(교

구일꾼, 교사, 찬양대원, 각 전도화원, 양육부원, 교회직원, 청년·대학부 임원, 차량관리부원), 그리고 평신도중원하는 이들에게다.

지난 주는 성황리에 모여 김창인 원로목사를 강사로 '천국 일꾼은'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세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하는 결심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에는 윤영탁 협동목사가 '청지기'와 '부서 봉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한 시간 동안 헌신인목사와 안도화에 각 부서를 위한 기도회를 갖게 된다.



원로장로 추대식

지난 주일 3부 예배시 교회에서는 헌법 정제 제5장 5조에 근거, 공동의회와 당회를 거쳐 우리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신 다섯 분을 원로장로로 추대하였다. 이번에 원로장로로 추대받은 한명목, 윤중순, 조현명, 김기정, 윤중생 원로장로(사진 우측 → 좌측 순)는 이제 원로회원으로, 당회에 참석할 수 있다. 원로장로로 추대하신 다섯 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다섯 그루의 큰 나무 그늘같이 교회를 향한 변함 없는 연자와 사랑의 훈계를 기대해 본다.



충현장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공의로운 재판장되신 하나님을 찬송

(시 9:1-20)

다윗이 지난 날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구원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환난이 닥쳐왔는데, 이 어려운 환난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권을 행사하셔서 해결해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만민은 하나님을 아는 날을 달라고 울부짖는 기도와 함께 찬송을 부르는 시입니다.

1. 은혜받은 다윗의 결심은 어떠합니까 (9:1-6)

(1) 은혜를 기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9:1)라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돈내지 않고,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아무 것도 낸 것이 없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내놓은 것이 없는데 공기, 햇빛, 그 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서 쓰고 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은 특수한 은혜를 받아서 신자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까지 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세 사랑으로 보호하심 어찌의심 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결심하며 애를 썼습니다.

(2) 은혜를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9:1)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혼자 간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전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조심스럽게 간증하며 그들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전도했습니다.

(3) 은혜를 찬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9:2)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못돼서 아버지가 여행갔다 돌아올 때에 가지고 온 선물은 좋아하면서, 아버지는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좋아하면서 하나님 자신은 좋아하지 아니하는 신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습니다. “**“나 예수 사랑 못잊어 위하여 눈물 흘리네”**” 다윗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찬미했습니다.

2.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합니까(9:7-12)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에 쓰시는데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과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권은 영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9:7)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의 권세는 얼마 있다가는 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재판장권이 갈리는 법이 없습니다. 천 년 만 년 영원히 계속되는데 그분의 구원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왜 실패를 하시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9:8)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재판할 때에 인정에 치우치고 권세에 눌리웁니다. 또 인간의 재판은 잘 살피지를 못해서 아닌 것을 그렇다 하고 선을 악으로 아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로우신 재판이어서 인정, 물질, 권세, 무엇에 끌리거나 눌리우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성도를 구원하시며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재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악한 자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께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9:9)라고 했습니다. 과부, 고아, 무식한 사람, 돈없는 사람, 세력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의 산성이시라는 말입니다. 원수가 쳐들어올 수 없는 산성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하늘나라에서 내려다 보고만 있는 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나라에서 구경만 하시는 구원이 아니고, 직접 세상에 오셔서 돌봐주시는 구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권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보장됨이 틀림이 없다고 만민에게 증거합니다.

3. 산넘어 산이오니 구원해 주옵소서 (9:13, 14)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9:13, 14)라고 했습니다. 이것 참 이상한 말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만민에게 전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권으로 나타나시는데 절대로 실패가 없다고 해놓고는 13절, 14절에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말이 또 나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상은 산을 넘어가니 또 산이 있고, 한 가지 시험치니 또 시험이 기다립니다. 한 번 시험에 합격했다고 다음에는 시험이 없습니까? 한번 전쟁에 이겼다고 다

인간은 재판할 때에 인정에 치우치고 권세에 눌리웁니다. 또 인간의 재판은 잘 살피지를 못해서 아닌 것을 그렇다 하고 선을 악으로 아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로우신 재판이어서 인정, 물질, 권세, 무엇에 끌리거나 눌리우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성도를 구원하시며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재판입니다.



음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병이 한 번 났다가 치료 받으면 다시는 병 안납니까? 또 납니다. 이것을 알아서 열 번 이기고 또 조심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당했다가 해결받고 또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번 억울함을 당하는 시험은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간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전에 구원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도 구원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열 번 어려움을 당했다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어려움을 또 당하면, ‘이전에 어려움은 조그마했지만 이번 어려움은 너무 커서 안될 것 같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해결해주신 하나님은 큰 것도 해결해 주시고 큰 것 해결해주신 분은 작은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큰 시험 이기고 작은 시험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윗은 과거보다 한없이 어려운 시험을 만났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 왔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두 가지 말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더 바로 살겠습니다.’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면 조롱하던 원수까지 하나님을 찾게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4.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9:15-20)

(1) 미련하고 불쌍합니다

“열방은 자기가 관 응당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엮혔도다……”(9:15-17)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의인들과 충신들을 미워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아예 업신여기고 못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가 의인을 죽이라고 내버려 두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참 보시다가 정 어려울 때에, “이제는 내 손을 펴야 되겠구나” 하고 손을 펴시는데, 이상한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의인을 괴롭히고 자기 욕심과 권세를 유지하려고 온갖 못된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해놓은 계획에, 딱 그 자리에서 처분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 모략한 악한 간신들이 그 사자굴에

서 뼈가 부서졌습니다. 모르드개를 오십 척 되는 나무에 목 매달아 죽이려던 하만이 그 나무에 제 목이 달렸습니다. 남의 잡이가 제잡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불신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너무나 무미련하고 너무나 무불쌍합니다.

(2)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 뿐인 줄 알게 하소서(셀라)”(9:19, 20)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 내가 거의 죽게 됐는데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앉아 계십니까? 이제 그만 구경하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로 빨리 심판을 해주세요.’ 다윗이 하도 급하니 하나님께 독촉하며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옵소서”, ‘불의한 인생이 의인을 죽이고 잘 되면, 자기가 하나님까지 이길 줄을 알 터이니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열방은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으며 두려워하며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자기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날 ‘나도 별 수 없는 하나의 인생이로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도 별 수 없구나’ 그러고 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 만민 앞에 면류관 받아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칭찬을 받으시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만민에게 구원을 전도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신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교만한 자랑은 잠시 후에 욕신도 제가 관 함정에 죽고, 영혼까지 지옥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어려울 때에, 편안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 구하는 지혜로운 신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약한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남이 어려움 당하는 날에 우리는 칭찬 받고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96년도 선교주일을 맞으며



세계를 품은 중현교회

장 봉 생

(목사, 선교위원회, 대학부 지도)

이야기(1) "왜 이제야 왔습니까?"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는 독신 여성선교사에게 그 부족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죽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도..."

이야기(2) "애 뭐하니?" "네 아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겨울인데 춥고 배고프지 않겠어요?" 교회학교 학생의 말이다.

이야기(3) "돈 없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국에서 기도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한 선교사님의 말이다.

이야기(4) "왜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야단인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할 일이야 많겠지요. 그래도 생명구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게 어디있어요." 한 젊은이의 말이다.

이야기(5)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것 좀 불편해도 선교부터 해야죠." 어느 집사님의 말이다.

1.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에 주인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과 인류의 타락으로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창 12장)을 통하여 다시 그 주권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과정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공동체인 이스라엘과 그 경건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되심을 알리시는 내용으로 가득찬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광경은 우리를 감격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종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출 19:5)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시는 선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는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약100여년전 미국의 몇 사람이 극동의 조선땅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성장과 선교국가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유되어야 하듯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요 전부가기에, 저들에게도 생명이요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1만2천 미전도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혈통과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종족 중에서 아직도 역동적인 교회와 훈련된 성도를 갖지 못한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이 1만2천 종족이나 됩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선교명령을 제자들과 교회에 주셨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가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피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종족에게 모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와 잠실운동장에서 열렸던 세계선교대회(GCOWE95)에서 전세계 기독교 선교지도자들이 모여 이제 5년 남은 AD2000까지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자고 결의했습니다. 5만여명의 젊은이들이 해외선교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기여와 가문의 전통계승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생명구원의 선교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도10-40도 창(10:40 WINDOW)에 선교가 전략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회교권, 힌두권, 불교권 등을 비롯한 대부분 미전도종족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결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회교와 북방권이 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찢어진 마지막 분단국가 한반도가 속해 있습니다. 북녘땅 내 동포, 지하교회가 복음의 자유를 갈구하고 있습

니다.

우리 중현교회는 선교한국의 선봉이겠습니다.

25년 전부터 시작된 중현의 선교역사는 세계 곳곳에 실려있는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을 이끌어 내었던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중현의 선교역사는 곧 근대 한국의 선교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파송한 목회자선교사와 전문인선교사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교회 출신들이 불타는 선교열정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2.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중현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이유입니다. 선교는 성도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생명의 복음은 생수와 같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중현교회에 임하는 은혜와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쳐서 민족과 세계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강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고이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 보내는 물은 늘 맑습니다.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계선교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통일의 문도 하나님이 여십니다.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모든 기도의 순간에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제목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매주일 오후4시(아멘홀)와 수요일 오전10시(교육관107호)에 모이는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습니다.

자식을 군대나 해외에 보내놓고 관심가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관심어린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족들과 사역에 관한 소식에 관심을 갖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듯이 그들을 기도의 끈으로 연결해야 하겠습니다. 주간중현의 선교관을 참고하며, 선교위원회(선교관 406

호)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수백명 출석하는 교회가 구역별로 선교사 1가정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교회는 900구역이 900명의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는 자신의 수입으로 해외에 몇군데 교회를 개척, 설립했습니다. 몇 분이 모여서 한 선교사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젊은 이들이 따로 모여서 선교를 공부하며 선교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자원을 발굴하여 탁월한 선교사후보생으로 훈련 파송할 수 있습니다.

선교연구원이 이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2월부터 개강하는 선교연구원은 매주 토요일 5-7시에 총회선교훈련원 교수진에 의하여 수준있는 선교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젊은이 선교후보생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선교소명자를 발굴하여 탁월한 선교사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3.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송선교사에 대한 사역후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정책을 세워 중현선교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겠습니다.

탁월한 목회자선교사와 전문인선교사를 적극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교회학교와 교구에서 자발적인 기도와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그룹이 하고 있는 선교후원체제를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돕겠습니다.

선교헌금자들에 대한 회원제로 선교소식 제공 등 적절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총회는 물론 각 선교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확하고 풍성한 선교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선교연구원 등록안내

- 등록대상 : 본 교회 성도로서 선교헌신자 또는 관심자
- 등록비 : 2만원(교재비)
- 등록처 : 교육국(교육관 1층) 신청서(소정양식)
- 등록마감 : 1월 27일(토) 오후 3시
- 등록자 면접 : 1월 27일(토) 오후 3시
-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 1월 27일(토) 오후 5시

사랑부는 신기하고 놀랍다. 이곳에는 자기 마음대로의 자유와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치 않는 배짱이 있다. 시간과 장소에 불문하는 초연함까지 갖들어 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기야말로 말로만 듣던 바로 그곳, 난장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부에서는 대체로 마음이 명하는 대로 찬송한다. 마음대로 기도한다.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마음대로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한다. 사랑부! 이곳은 마음대로의 천국이다. 물론 점잖아야 할 우리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건대 교사란 마음대로의 자유를 가로막는 자유의 천적이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주 일



정경달리

사랑부 : 자유의 천국

장 경 철

(목사, 전도위원회, 사랑부, 제 6교구 지도)

정한 방식대로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아파와 무엇을 하는 것에도 자기네들이 생각해 낸 특별한 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물론 그들은 우리를 무진장, 무지막지하게, 무작정, 끝없이 사랑해주는 고마

운 아찌, 업니들이다. 우리도 나름대로 강력한 표현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사랑이란 꼭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안그래주면 그들이 매우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이다. 아무튼 다 좋은데 그들과 우리는 이 자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피차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

는 넓게 이해한다. 그들은 무엇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가로막도록 하면서 한편 우리도 계속 자유롭게 살아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피차 자유로운 것이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자유롭게 누워 졸면서 하나님 아파와 요즘의 선거 정국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고, 우리의 선생님들은 또한 자유롭게 우리를 자꾸 일으켜 앉히기도 하고 우리의 손을 잡고 기도도 하였다. 우리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모조리 천국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우리는 피차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부를 꾸며갈 것이다.

토막소식

◆ 영아부에서는 96년도에 영아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공부할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94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엄마, 아빠가 함께 주일에 영아부실(선교관 102호)로 오면 된다.

◆ 탁아부는 1월 23일(화) 오후 6시 30분, 칼빈홀에서 교사특별회의 시간을 마련했다. 96년도 사업계획의 설명,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과 교사들간의 교제를 위해서 모인다.

◆ 지난 1월 11일(목) 대전중앙교회에서 개최된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 제18회 성가경연대회 및 성경고사 대회에서 우리교회 초등6부 찬양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 중등2부에서는 중등2부 주보에 주간성경읽기표를 만들어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대학부에서는 1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회비는 8천원(간식, 교재비 포함)이며 장소는 메추라기홀이다.

◆ 새가족부에서는 새가족들이 성경 쓰기, 읽기의 생활화를 위해 새가족들에게 성경 읽고 쓰기에 대한 시상을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고 있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중헌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경 읽기와 쓰기가 뿌리내려 말씀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96년도가 되었으면 한다.

◆ 선교위원회에서는 28일 선교주일을 지키며 특별찬양을 위하여 매주일(21일, 28일 주일) 찬양연습을 한다. 모임 시간은 오후 3시, 장소는 베다니홀이다.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기도회원, 선교연구원생(1~4기 수료생 포함), 선교회원 전원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찬양연습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회계 실무 교육 28일(주일)에

재정위원회에서는 96년도에 각 부서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한다.

28일(주일) 오후 3시에 교육관 301호에서 실시될 이번 회계실무교육에 ① 교회학교 회계 및 총무처장 ② 남여전도회 연합회 회계 및 회장 ③ 각 위원회 회계 ④ 찬양대와 연주대의 회계 및 총무 등은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가브리엘찬양대의 미혼자모임이 1월 27일(토) 오후 5시에 있다. 장소는 이재준(현 미혼자 회장)의 집에서 모인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올 한해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며, 영력을 다하여 주소서.
· 24일(수) 교회학교 지도·부장 연석회의
· 26일(금) 교역자 1월 정기기도회 설교
3. 새롭게 임명된 일꾼들이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4.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5.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제공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6.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님의 건강이(신장)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7. 전 찬양대원들이 영성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8. 경로심방을 받는 성도들에게 올 한해에도 건강과 능력을 주시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 잘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소서.
9. 청지기훈련(2차 : 26일) 통하여 새롭게 결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강의하시는 윤영탁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소서.
10. 교회학교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각 부서가 부흥케 하소서.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

(1월 21일 ~ 2월 19일)

모슬렘의 라마단에 대한 역라마단 기도운동에 동참하면서

모슬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장수 진
(대학부 회원)

혜를 주셨다. 바로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이다. 이 운동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기도에 동참케 함으로써 이슬람권에 복음의 돌파구를 열고, 더 많은 사역자를 헌신케 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영적 어둠속에 갇혀있는 이 세대의 모슬렘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 죄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모슬렘들이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도록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 중보기도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을 위한 최상의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슬렘을 향한 중보기도를 사용하여 이슬람의 세력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정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음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 2:8)

※ 1월 21일부터 2월 19

일까지 모슬렘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책자를 구입하실 분은 선교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운동은 청년부와 대학부가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슬렘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슬람’이란 말은 알라에게의 복종을 의미하며, ‘모슬렘’은 이슬람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렘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인 12억을 차지한다. 이들의 개종은 거의 불가능하며,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국가와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죽음이다.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의 신앙의 표현으로 5가지 기둥—알라에 대한 신앙고백, 하루에 다섯번씩 하는 기도, 금식, 성지순례—을 지킨다. 특히 네번째 기둥인 금식을 ‘라마단’이라고 하여 이슬람력으로 9월 한달 동안 실시되며 라마단 기간 동안 모슬렘들은 하얀실과 검은실을 구별할 수 있는 동물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매일 금식해야 한다. 사춘기를 지난 건강한 모슬렘이면 모두 이 금식에참여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음식뿐 아니라 마시는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는가! 라마단 기간에 응답 받을 수 없는 헛된 이름을 부르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슬렘의 안타까운 모습.

것, 담배, 부부생활, 심지어 주사맞는 것까지도 삼가해야 하는 등 사람의 강한 의지를 요구한다. 모슬렘들은 이러한 금식을 함으로써 신앙심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으며, 알라에게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6년의 라마단은 1월 21일 주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2월 19일 월요일에 마친다. 모슬렘들이 알라를 향하여 한달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에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슬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역으로 기도하도록 지